

첫 女전문병원 133주년... 의료원 모금약정 300억 접경사

〈보구녀관〉



이대 부속병원 전신 '보구녀관' 지난 9월 모금약정 300억 돌파 '이화의 가치 실현... 사명 다할 것'

지난 1887년 문을 연 국내 첫 여성 전문병원 '보구녀관'이 올해로 133주년을 맞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달 30일 '보구녀관' 설립 13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구녀관은 국내 최초 여성 전문병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이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장운재 이화여자



이화의료원 보구녀관 133주년을 맞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대학교 교목실장 겸 이화의료원 원목실장, 심현 이화의대 동창회장을 비롯해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과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보구녀관장 등 학교 및 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소외된 사람의 친구였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자였던 보구녀관을 지켜왔던 우리의 선배를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가슴이 벅차다"며 "앞으로도 '보구녀관의 정신' '이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

관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887년 10월 설립된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에 고종 황제는 '여성을 널리 구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구녀관'이란 이름을 하사했으며, 영어로는 'House for Many Sick Women' (많은 아픈 여성들을 위한 집)이라 불렀다.

이화의료원은 막대한 역사적 사료와 증언을 수집해 2016년부터 의료원의 모태인 '보구녀관 복원 프로젝트'에 돌입, 2019년 서울 마곡에 설립된 이대서울병원 개원에 맞춰 복원된 보구녀관을 개관했다.

보구녀관 3대 병원장이었던 로제타 홀의 예전 알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보구녀관은 128㎡ 규모의 한옥집으로 수술실과 병실, 진료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온돌방 구조지만 30명을 입원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부가 체계적이다. 현재는 박물관과 전시실, 영빈관 등으로 구성돼 환자와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모금 약정 300억 달성 축하연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화의료원 모금 약정이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300억원을 돌파한 것. 이화의료원 모금 약정에는 교직원을 비롯해 이화 동문과 환자 등 총 3192명이 참가했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모금 약정 300억 달성을 위해 힘써준 교직원과 항상 의료원을 지원해주는 이화 동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기억할 것"이라며 "기념식과 함께 '모금약정 300억 달성' 축하의 자리를 함께 마련할 수 있게 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진퀀텀'과 위탁개발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 中 바이오시장 입지강화

진퀀텀과 추가 위탁개발 협력 논의 지난 6월 美 FDA로부터 임상 승인 中 바이오시장 연평균 14% 성장 예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물질을 위탁개발(CDO)하며 중국 바이오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진퀀텀의 비소세포성폐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GQ1003)의 세포주 CD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진퀀텀은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DC) 기반으로 각종 종양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국 바이오벤처다.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HER2 유전자 변이에 따른 유방암·위암 치료제(GQ1001)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진퀀텀이 보유중인 다수의 개발 파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 모습.

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CDO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중화권 바이오벤처와의 협업에 잇따라 성공하며 고성장 중인 중국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578억위안(44조원)이며 향후 연평균 14.4%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대만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 아프리노이아와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진퀀텀과의 협업을 확정했고, 최근에는 중국 내 다수의 바이오벤처와 CDO 계약을 논의 중이다.

진퀀텀의 경우 첫번째 신약 개발 물질(GQ1001)은 중국 기업과 CDO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번째 개발 물질부터는 위탁개발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전환했다.

진강 진퀀텀 대표는 "시장에서 검증된 개발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 파트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헌신과 의지를 보고 협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환자에게 혁신적인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기술혁신

파트너십 통해 경쟁력 강화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벤처캐피탈 회사인 라이프사이 벤처 파트너스(LifeSci)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 상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신약 개발뿐 아니라, 앞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ifeSci는 차세대 바이오 기업 투자에 주력,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세계적인 헬스케어 벤처캐피탈이다. LifeSci가 보유한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 초기 신약 후보 물질과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미국의 유망한 바이오벤처 업체들과의 연구 협력 등 전략

적 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유창호경영전략실장은 "SK바이오팜은 펀드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유망 벤처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feSci 최고투자책임자인 폴 육은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SK바이오팜과 협력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LifeSci가 수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차세대 생명과학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신약판매 허가를 받은 혁신 신약2종(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톨)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마케팅과 판매를 직접 맡아 2020년 5월 미국 시장 출시했다. /이세경 기자

보령제약-녹십자 '뉴라펙' 분기매출 실적 230% ↑

공동판매 2년만에 '쾌거'

보령제약은 GC녹십자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사진)'에 대한 공동판매 시행 2년여 만에 분기 매출실적(IQVIA 기준)이 230% 성장했다고 2일 밝혔다. 뉴라펙은 지난 2015년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양사는 지난 2018년 10월 뉴라펙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을 통해 양사는 뉴라펙의 공동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통은 보령제약이 담당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2분기 뉴라펙의 매출실적은 약 10억원 규모였으나 2020년 2분기에는 약 33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약 2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동화약품 액상 간기능 개선제 출시



했다. 현재 국내 2세대 호중구감소증치료제는 뉴라펙을 포함해 4개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국내 시장은 분기 기준 약 112억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뉴라펙이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뤄낸 성공 요인은 GC녹십자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된 뉴라펙의 우수한 임상적 가치와 국내 항암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보령제약의 항암분야 영업마케팅역량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경 기자



동화약품은 액상 간기능 개선제 '헬민리버스액(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헬민리버스액은 1982

년 출시되었던 동화약품 헬민200연질캡슐의 브랜드 컨셉을 잇는 신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에는 간 기능 개선과 육체피로 회복을 위한 주요 성분이 함유됐다. 육체피로 및 전신관대 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美에 2100억 규모 신속진단키트 공급 (코로나19)

최고 수준 민감도 갖춰

셀트리온은 미국 자회사인 셀트리온 USA가 21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키트 '샘피뉴트(사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한 이후 곧바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셀트리온USA는 미국 뉴욕 소재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PPE) 전문 도매유통사인 '프라이م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와 이번 계약을 체결했으며, 프 라이미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는 코로나19신속진단 항원키트 샘피뉴트에 대한 독점 유통 권한을 갖고 미국시장에 유통하게 된다. 샘피뉴트는 독자적인 코로나19 항체

-항원 기술을 접목해 민감도를 높이고, 휴대가 능한 전문 장비를 이용해 10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진단 항원키트로, 국내 진단기기 전문업체인 BBB와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특히 기존 RT-PCR(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방식 대비 94% 이상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신속진단기기 중 최고 수준의 민감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개발 및 EUA 신청을 앞둔 후속제품들의 출시를 바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진단키트 공급에 총력을 다해 글로벌 코로나19 방역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